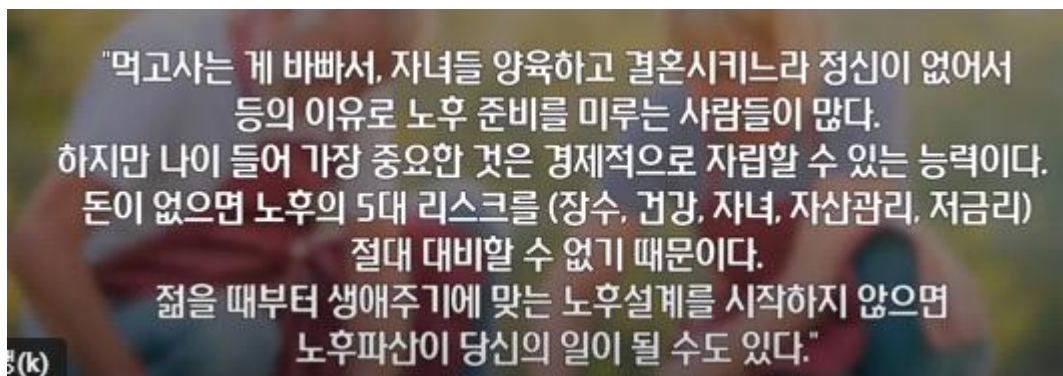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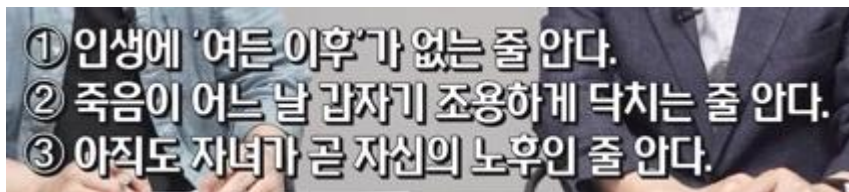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M0mZwTl6a6s>

## 강창희 노후파산 대비책

1. 노후 3대 불안 --> 돈, 건강, 외로움
2.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되었기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3.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는 평생현역이다.**
4. 노후 대비를 미루는 이유



5. 노후 자금
    - 노후 자금이 있어도 3가지 발목을 잡히면 곤란 : **80이후 산다. 죽기까지 화장실 혼자 다니면 행복, 자식이 자녀의 노후가 아니다.**
- 80이후가 없는 줄 안다, 재수 없어 120살까지 산다면 뭐하고 살 것인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이다.



- 임종 난민, 남편이 죽은 뒤 아내 혼자 살 기간이 10년 이상 되니 걱정

6.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생각을 빨리 바꿔야한다.
  - 남자80세 여자81세 --- 일본보다 장수할 듯
  - 화장 수목장 급격하게 늘어 --- 교회

7. 혼자 살기

50세 이상 남성 중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 수: 452,200명  
50세 이상 여성 중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수: 269,258명

- 1) 사별 : 50대 이상 남자 45만 여자 270만
- 2) 이혼 : 11만건 옛날엔 결혼 실망하면 희망을 버렸지만 요즘은 남편

이혼 커플 수: 1970년대 연 평균 15,000건 → 2019년 110,800건

중년 황혼이혼율 37%로 일본보다 훨씬 높다.

결혼후 20년이상 된 커플의 이혼비율: 5%(1990년) → 37%(2020년)

- 3) 결혼을 하지 않은 생애미혼 45-54세 결혼안한 사람

[생애미혼율: 50세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

구분		198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추정]	2035년 [추정]
한국	남	0.4%	10.9%	16.8%	20.7%	30%
	여	0.3%	5.0%	7.6%	12.3%	20%
일본	남	-	23.5%	26.7%	27.4%	30%
	여	-	14.7%	17.5%	18.9%	20%

일본은 남자 3명중 하나, 여자 5명중 하나 --- 이혼보다 많아

8. 1인 가구

### ■ 한국의 1인가구 증가추이

연도	198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45년 [추정]
가구수 (만가구)	797	1,431	1,734	2,096	2,232
1인가구 (만가구)	38	222	414	664	810
비율	5%	16%	24%	32%	36%

### ■ 주요국의 1인가구 비율 (2018년)

[단위 : %]

국가	한국(2020)	일본	스웨덴	미국
전국	32	35	57	28
수도	-	-	60	46

자료 : 한국통계청, 유로모니터, 일본국세조사, 미국인구조사국

스웨덴 혼자 사는 사람이 60% 행복지수 세계 7위  
**연금과 건강보험이 발달되어 먹고 살 걱정 없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있다.**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가 되었는데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  
 어차피 혼자 살게 되니 고독력을 키워야 한다. 즉 혼자 살 마음가짐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 노후준비에 유념할 것

- ① 연금·보험 준비
- ②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의 준비
- ③ 남편중심의 노후준비 → 혼자 남는 아내를 배려한 준비
- ④ 주거형태의 합리적 선택
- ⑤ 가족의 회복

9. 혼자 사는 기간 : 여자가 더 오래 산다.

- ~~사별~~ 후 혼자 사는 기간: 남성 9~10년 / 여성 15~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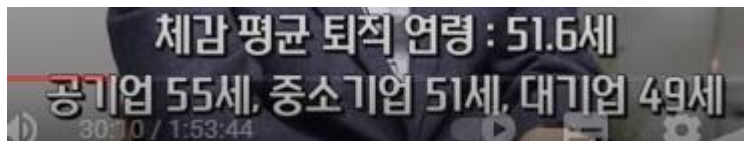
유명한 변호사 돌아가신 뒤 보니 재산 미리 자녀에게 주고, 건물 월세는 아내가 받도록 조치해냈다. 소유권 아들, 사용권 아내

10. 주거 : 대형 고층 아파트 조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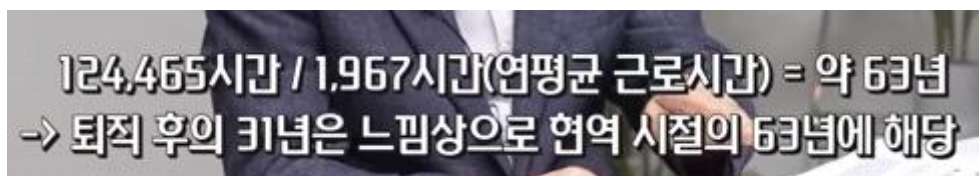
자녀와 같이 살래 20% 자녀집 부근 50%, 노인 요양시설 30%

일본 고독사 20여일,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살아야 알게 되는데...  
자녀와 떨어져 살면 이웃이 제일 좋은 관계 - 도움이 되니까...  
일본 대형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소형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고령화시대 도심화 - 역세권 소형빌라 은행 병원 쇼핑 교통 편리한 곳  
한 건물에 3세대 같이 사는 집, 큰 집 공유하기

11. 퇴직 후 30-40년 12만 시간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60년



52세 - 83세 퇴직 후 시간이 안간다. 하루에 11시간 남는다.



100살까지 산다면 더 많은 기간을...

12. 확실한 노후 대비

- 1) 노후생활비 모자라면 --- 우리나라 70-80%  
50대가 제일 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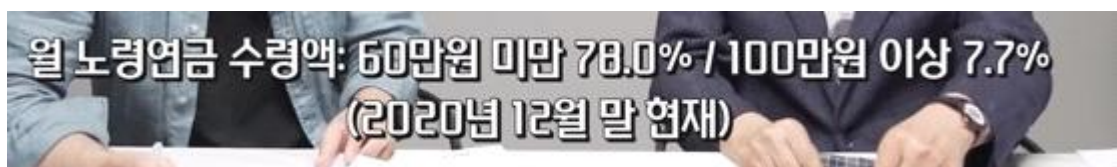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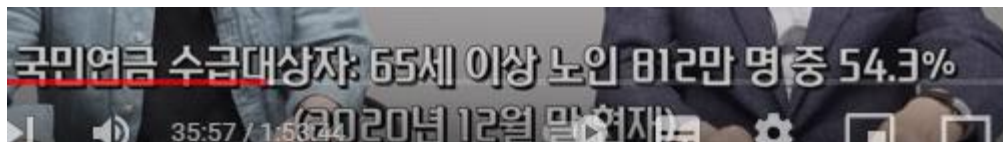
## 50대 가구 보유자산 현황

총 자산	5억 1,000만 원
부 채	- 9,900만 원
순 자산	= 4억 1,100만 원
부동산	- 3억 5,700만 원
가용 순 금융자산	= 5,400만 원

자료 : 2020년 3월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 2) 일본의 28평 1억2천 3억 다시 3000만원 그것도 안팔려
- 3) 일본 꼴 나면 집만 있는 사람은 어이해? 일할 수 밖에는

### 13. 국민연금



### 14. 퇴직 후 소일거리 없어 미친다.

오전에는 헬스장에서 시간 떼우고

오후에는 커피 마시며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할까 고민한다

돈보다도 갈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NPO 활동 민간 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봉사과 교육 30% 받아 용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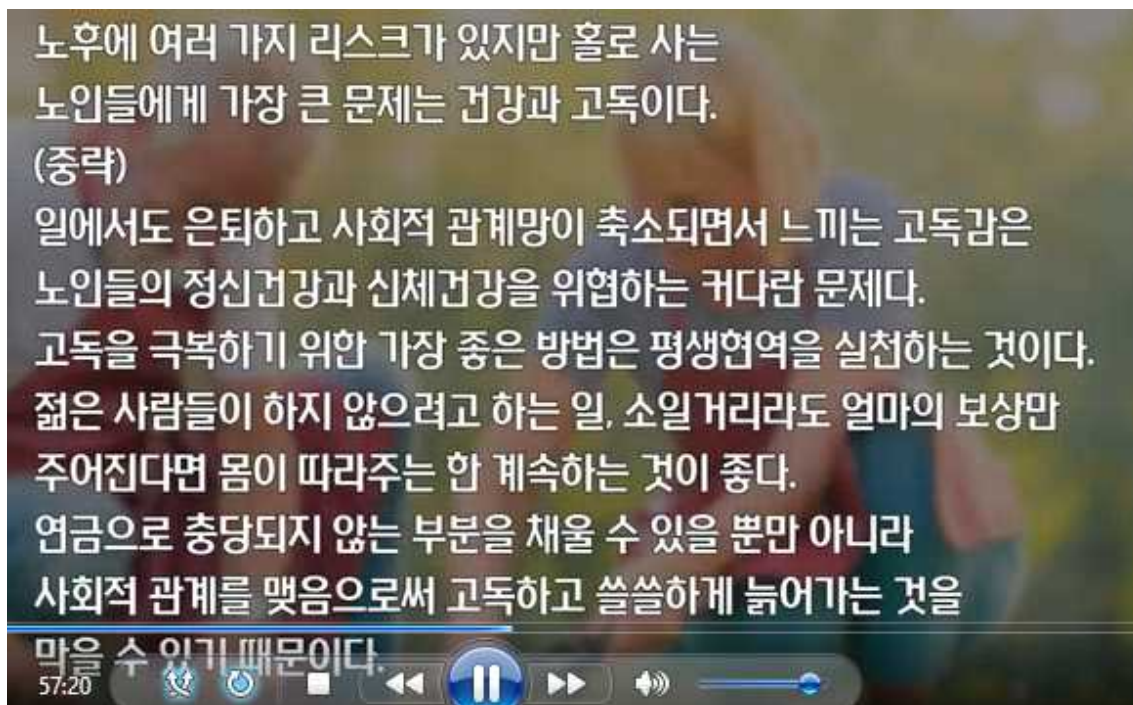
### 15. 노후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거리다.

- 일을 하면 더 건강하게 산다.

- 노인들 만나면 말을 많이 한다. 평소에 외로워서 못한 말을 쏟아낸다
- 말하면서 일을 하니 건강에도 경제에도 아내와의 관계에도 좋다.
- 일은 젊은층도 부족하니 아파트 관리인 등 체면을 버리고 취직해야...
- 방문개호 : 경제력 있는 노인들 찾아다니며 쪽팔리지 않고
- 남의 눈을 의식하면 일을 못한다.
- 창직의 시대 : **노인들 모시고 버킷리스트 해결하기 해보자.**
- 직업수 엄청 늘어나 우리나라, 미국 30만개 인터넷 장의사

## 16. 노인 일자리

-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한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일
- 강창희 대표는 월급도 스스로 깎고 자동차 안받고 일했다.
- 폼나고 돈 많이 받고 편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
-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계속 유지될까 생각해보라.



- 공무원 퇴직하니 갈 곳이 없더라. 돈은 있지만 놀아보니 3개월 뿐
-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일하게 되어 즐겁게 일했다. 인기 짱!
- 그렇게 무섭던 아내가 천사로 바뀌었다.
- **인기 있는 남편 1위 : 낮에 집에 없는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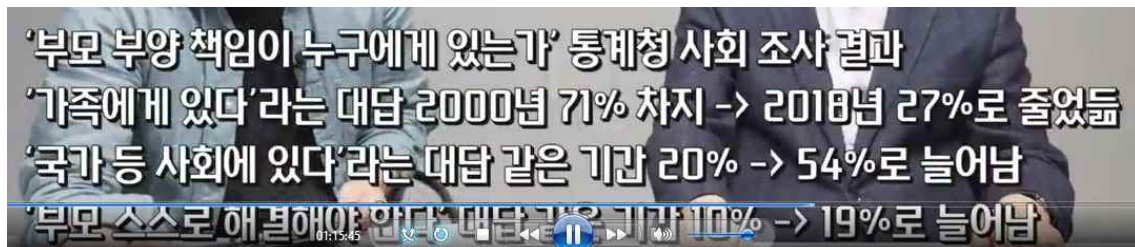
## 17. 직장인

- 자기 일이 월급 보너스 등이 나오는 자기 큰 엔진이다.
- 자기 직장에 신경 써라.

## 18. 자녀 문제

- 일본 250만명이 기생충적 독신
- 우리나라도 45만명
- 부모 연금으로 살다가 부모 죽으면 은폐하고 연금받아 살거나 극빈층
- 자녀 스스로 결혼비용 충당이 10% 수준
- 년봉 2000만원 무지하게 어렵다
- 취직도 못하는 자녀들 큰 문제
- 취직하고서도 45세 근무할 확률이 60-40-20% 6번 정도 이직하더라
- 공부보다 전문성과 소신 있고 인간성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 영어 수학 못해도 밥먹고 산다. **경제적 자립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 19. 부모 부양 책임



## 20. 자산 구조

[%]

국가		부동산	금융자산
한국 (2019)	전체평균	79	21
	60대 이상 가정	81	19
미국(2017)		30	70
일본	(1990)	60	40
	(2019)	30	70

자료 : 한국은행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9)  
미국 FRB, 'Financial Accounts' (2019 2Q)  
일본국민계정(2017)

- 미국 일본 등 주택 팔아 리츠 등에 투자 하는 경우도
- 외국은 집은 빌려서 산다. 집 소유하면 세금 수리 등에 돈 들어간다.
- 일본 3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없이 빌려살려는 생각이 많아져
- 도시화되면서 시골에서 와서 집을 샀지만 도시화가 끝나면 집살 사람 없어서 집값 떨어진다. 우리나라도 이미 80% 이상 도시화율...

정들 상 20-40대가 계속 줄어들어 상 상황이 없다

#### ■ 가구수 증감추이

구분		2000~2020년	2020~2040년
총가구수 증감		+570만 40% (연복리1.7%)	+210만 10% (연복리0.5%)
연령대별 가구수 증감	20-30대	-100만	-130만
	40-50대	+260만	-190만
	60대 이상	+400만	+530만
70대이상 가구 비중		7% → 15% (2020년)	15% → 34% (2040년)
가구원수별 가구수 증감	1-2인	+680만	+380만
	3인이상	-110만	-170만
1-2인 가구 비중		34% → 58% (+24%p)	58% → 70% (+12%p)

노인들은 집이 이미  
있거나 돈이 없어

자료 : 통계청,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1. 노인 빈곤율 - 참고로 하시오.